

임팩트그라운드 최종보고서 : 지리산이음

2025년 사업개요

| | |
|-------|--|
| 사업명 | 2025 지리산이음 - 연결에서 관계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색과 시도 |
| 제출일 | 2026년 1월 15일 |
| 목 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의 변화의 의제들이 지역에서, 지역과 함께 더 큰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을-지리산-전국을 연결하는 흐름을 만들어간다. ●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리산권으로 활동하는 작은변화 의제를 지원하고 발굴하여 지역 로컬의 범위를 생활권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활동을 만들어 간다. ● ‘토닥’은 마을 내 관계를 재구성하고 외부와의 연결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마을 내 후원회원 확대를 통해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들썩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워크숍, 포럼, 교육 공간에서 더 나아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게 한다. ● 전해년도 구성된 조합원 중심의 운영 구조를 보다 협력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이들과 함께 커뮤니티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사업 등을 운영한다. |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총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3년간) |
| 사업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산문화공간 토닥을 거점으로 한 마을 의제 및 교류 지원 사업 진행 ● 마을 내 다양한 사람들의 연결 및 관계를 촉진하고, 자원을 공유하여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 ● 지리산권 분야별 네트워크 조직 및 연결 및 사례 발굴 ● 사회 변화와 관련된 의제를 중심으로 모이는 중소 규모의 포럼형 프로그램 기획 ● 국내외 로컬 탐방을 통한 학습과 교류 |

주요 사업 및 성과 요약

1. 마을 : 마을 의제 및 교류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마을 커뮤니티공간 운영

- 2024년 리브랜딩한 '지리산문화공간 토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토닥'은 운영 시간 중 마을안내소 겸 공유오피스로, 쾌적하게 오갈 수 있는 일상적인 교류의 장으로 역할함.
- 유휴시간은 연중 여러 마을 동아리에서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5개 이상의 모임에서 공간을 정기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했으며, 'OO와 OO의 세상보기 공유회', '축백나무 집 등불을 켜고 북토크', '마을극단 떼아뜨르 마고 낭독회' 등 대관 행사가 진행됨.
- 1월에는 '요일지기' 시스템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자율적 관리와 맡기는 방식의 운영 실험을 해보았으며, 원활하게 진행됨.

- 다양한 형식의 마을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일시 | 구분 | 행사명 |
|------|------|-----------------------------------|
| 3/5 | 마을교류 | 헌 가방 새 주인 찾는 '경칩 가방마켓' |
| 3/7 | 의제지원 | 제1회 산내마을 모두발표회 |
| 4/16 | 의제지원 | 세월호 11주기 <너와 나> 마을 상영회 |
| 4/25 | 마을교육 | 제16회 지리산쌀롱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

| | | |
|---------|------|--|
| 5/18 | 마을교류 |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함께 달리기 대회 '오일팔달리기' |
| 5/23 | 마을교육 | 제17회 지리산쌀롱 '한 걸음 뒤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앞으로의 세상' |
| 6/25 | 의제지원 | 집에 관한 집담회 1부 |
| 7/2 | 의제지원 | 집에 관한 집담회 2부 |
| 7/25 | 마을교육 | 제18회 지리산쌀롱 '시블루 :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시대를 경험하는가' |
| 8/29 | 마을교육 | 제19회 지리산쌀롱 '찾아가는 읍면자치 설명회' |
| 10/31 | 마을교육 | 제20회 지리산쌀롱 '평화는 처음이라 : 우리가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 |
| 11/23 | 마을교류 | 제2회 대정길 작은잔치 '커먼!' |
| 12/20 | 마을교육 | 제21회 지리산쌀롱 '이지상 지리산 콘서트 : 우리는 사람이 사는 마을로 간다' |
| 12/26 | 의제지원 | 산내학 보고회 '마을의 물':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산내의 삶을 위한 공부 |
| 월 1회 | 의제지원 | 주민참여모임 '세상을 조금 바꾸는 시민모임' |
| 월 1~ 2회 | 의제지원 | 음악감상모임 '산내뮤지엄' |

- 산내마을 모두발표회 : 마을의 개방성과 연결성 증진을 목적으로 남원시 산내면의 16개 단체/모임/공간이 한 자리에 모여 2024년을 돌아보고 2025년 계획을 공유하는 제1회 <산내마을 모두발표회>를 시작함. 그 결과로 33개 단체/모임/공간의 정보를 정리하여 책자 및 온라인으로 공개함.
- 지리산쌀롱 : 북토크 형식의 '지리산쌀롱'(6회)을 통해 지역에서 학습이 필요한 의제를 소개하고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다른 지역에서 토닥을 인식하고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대정길 작은 잔치 : 작년에 이어 마을 내 단체들과 (비니루없는점빵, 성폭력근절을위한 지리산여성회의, 산내청년네트워크팀새) 공동 주최로 축제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
- 그밖에도 주거환경/주민참여/문화예술 등 기존 사업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의제와 관련한 모임의 운영, 수익금이 지역 내 자원순환가게에 기부되는 '경칩 가방마켓', 남원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함께 쓰기 등 마을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고 뜻을 모아 실천으로 이어가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함.

- 인터뷰 콘텐츠 제작

| 일시 | 대상 | 제목 |
|-------|--------------|-----------------------|
| 10/23 | 인드라망 한형민 활동가 | 마을은 가장 넓고 깊은 교실이다 |
| 12/22 | 노닐다 김지영 대표 | 인도와 지리산 산내를 잇는 조용한 여정 |

- 하반기 중 마을활동가 인터뷰를 2회 진행하고 공개함.

- 성과와 평가

- 함께 돌보고 같이 만드는 마을 커먼즈 ‘토닥’

- 마을 내에서 ‘토닥’이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며, 주민들 사이에서 공간 활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담당자가 주도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공간을 아지트처럼 활용하는 자발적인 소모임이 늘어나면서, 토닥은 특정 활동을 위한 장소를 넘어 마을의 열린 공공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이와 함께 1월 휴식 기간 동안 주민들이 ‘요일지기’ 방식으로 공간을 자율적으로 이용하며 청소 등 공간 돌봄을 맡는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주민 수요와 공동 관리의 가능성을 확인함. 2026년 1월에도 동일한 방식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 동안 토닥을 활발히 이용해 온 마을 모임들과 신규 모임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인 점은 공간을 매개로 한 공동 관리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됨.

- 공간을 넘어 마을 활동의 주된 파트너를 찾고 연결하는 과정

- 2024년 ‘산내소설픽션’을 비롯한 마을 의제 발굴 프로그램과 후속 모임, 마을 단체들과 연계한 ‘제1회 대정길 페스티벌’을 통해 발견한 마을 활동의 핵심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2025년은 이들과의 접점을 확장하고 마을의 다양한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탐색의 해로 운영됨.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마을 내 여러 단체들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함.

- 그 결과, 마을 내 4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제2회 대정길 작은잔치', 실상사와 협력한 '살래마을영화제', 마을 내 8개 단체들과 함께한 '5·18 달리기' 등 토닥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 마을 전체가 유기적으로 역이는 협업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 더 나아가, 올해 처음 시도한 마을 단체·모임 교류의 장인 '산내마을 모두발표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반향을 얻었고, 이를 농림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향후 5년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속성의 토대를 마련함.
- 외부와의 연결을 촉진하는 마을 안내 거점으로서의 역할
- '지리산쌀롱'을 북토크 형식으로 운영하며 마을에서 확산이 필요한 의제들을 큐레이션하고,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함. 이를 통해 외부 초대 손님과 마을을 잇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며, 의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을 확인함.
 - 아울러 연중 타 지역 활동가와 마을 방문자들에게 산내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며, 산내 및 지리산권 활동에 대한 외부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 기존의 마을 주민 인터뷰 콘텐츠에 더해, 새로운 시각과 방식으로 지역살이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 제작을 내년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산내청년네트워크 틈새'와 협업을 준비함. 향후 해당 콘텐츠는 토닥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산하며 마을을 둘러싼 관계망을 확장해 나갈 계획임.
- 관련 콘텐츠
- 나의 집, 너의 집, 우리의 시골집·집·집! - '집에 관한 집담회' 후기 ([링크](#))
 - 인드라마 한형민 활동가 인터뷰 ([링크](#))
 - 지리산쌀롱 이웅석 활동가 "우리가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 후기 ([링크](#))
 - 2025 대정길 도서전 : 산내 사람들이 고른 '올해의 책'은? ([링크](#))

2. 지리산권 : 작은변화 활동 및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작은변화 활동 사업

■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가 연석회의

- 주요 내용 : 지리산이음과 지리산권 지역의 공익활동에 관해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가와 연석회의를 진행함, 지리산권 지역의 활동 및 지역 현황에 대한 공유, '다시, 지리산 운동'에 대한 공유, 참여 및 공동 홍보 제안
- 주요 참석자 : 정태연(구레, 지리산사람들 활동가) 유지선(남원, 시민공감 대표) 김한범(산청,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 코디네이터), 이순경(하동, 오하동 편집장), 김찬두(함양, 함양작은변화네트워크 대표)
- 진행 일정 : 2025년 3월 18일, 6월 17일

■ 지리산권 커뮤니티 인터뷰

- 주요 내용 : 지역 인터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발행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활동 이야기를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활동 진행.
- 상반기에는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결혼식을 진행한 지역의 청년 부부 4인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환경운동가 2인을 만나 인터뷰하여 기록함.
- 인터뷰 콘텐츠 제작

| 일시 | 대상 | 제목 |
|-------|-------------------|------------------------------|
| 6/9 | 버들과 승현 | 은혜 값은 혼인 잔치 : 버들과 승현이 한대하는 법 |
| 6/19 | 먼지와 이르 | 먼지와 이르의 '산 너머 선' 결혼식 |
| 9/2 | 정정환 (지리산사람들 사무국장) | 새와 함께 자란 아이, 지리산의 목소리가 되다 |
| 12/22 | 청명 (탈핵 비움 실천가) | 청명이 가는 길에 질문이 온다, "탈핵이 뭐예요?" |

■ 지리산권 청년 활동가 모임 추진

- 주요내용 : 함양 '함양청년네트워크 이소', 산청 '청년모임 있다', 남원 '산내청년네트워크 틈새' 청년모임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청년활동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의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를 만듭.
- 모임 개요
 - 일정 : 2025년 12월 10일
 - 장소 : 함양 '도하 비건 베이커리'
 - 참석 : 함양 '이소' 2명, 산청 '있다' 2명, 남원 '틈새' 2명, 지리산이음

■ 지리산 동짓날 이야기 잔치

- 주요 내용 : 따뜻한 동지팔죽 한 그릇과 함께하는 이 모임은 지리산권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 한 해의 의미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해에 대한 기대를 나누는 행사임. 지리산의 여러 지역을 활취고 간 산불과 수해에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골프장 건설 반대 투쟁에서 백지화를 이끌어낸 사포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에서 여러 분야의 활동가들이 올해를 돌아보며, 지역사회의 과제에 대한 제안을 해보는 자리를 함께 만듭. 또, 지리산이음이 지원하고 있는 지역 뮤지션들의 공연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의 연대감을 확인하고 향후 활동의 동력을 공유함.
- 모임 개요
 - 일정 : 2025년 12월 21일

- 장소 : 구례 산동면 사포마을, 산책도서관
- 참석 : 지리산권 주민 50명
- 행정의 경계를 넘는 지리산권 네트워크 활동 지원
 - 모임·네트워크 운영 지원
 - 개요
 - 지리산권 내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이 행정구역과 분야의 경계를 넘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제별 모임과 네트워크의 운영을 지원함.
 - 정기적인 교류와 공동 학습, 현장 기반 활동을 통해 관계가 축적되고, 각 모임이 지역사회 내에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지리산권 촉진자 이야기 모임
 - 주요 활동 : 지리산권에서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활동가 및 프로그램 기획자들이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류와 학습 모임을 지원함.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함양 수동중학교와 연계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남 산청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일상적으로는 자체 학습과 워크숍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기획 및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속함.
 - 다시, 지리산 운동 모임
 - 주요 활동 : 지리산 개발 이슈에 대한 개별적 대응을 넘어, 지리산권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이 장기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의 운영을 지원함. 이 과정에서 산청 지역에서 ‘하지모임’을 개최하여 지역 개발 이슈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였으며, 연말에는 ‘동지모임’을 통해 지리산권 공익 활동가들의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지역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함.
 - 지리산권 청소년 공간 운영자 네트워크

- 주요 활동 : 지리산권에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과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격월 정기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감. 산청 청소년공간 명왕성, 남원 산내면 청소년공간 룰루랄라, 남원 인월 청소년공간 청온, 함양 청소년 기획단 운영자가 참여하여 각 공간의 운영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고 활동을 성찰함으로써, 열악한 지역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의 성장을 중심에 둔 활동의 목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지지와 협력을 강화함.

- 지리산권 일상예술 네트워크

- 주요 활동 : 지리산권 내 문화예술, 특히 음악 기반 모임들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함. 남원 살래재즈밴드, 함양·산청 빈동밴드, 합천 서와콩, 구례 소소한밴드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 공연과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각자의 공연에 상호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이어감. 또한 동지날 이야기잔치를 통해 연합 공연을 선보이며 지리산권 일상예술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협력 가능성을 확인함.

- 재난 대응 기록 및 지역 공론화 활동

- 개요

- 지리산권에서 발생한 재난을 단발적 사건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경험과 지역사회의 대응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향후 지역 차원의 대응과 연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산청 수해 재난 대응 기획 인터뷰 운영

- 주요 활동 : 2025년 4월 지리산권 산청·하동 지역 산불과 7월 산청·하동·합천 일대 수해 발생 이후, 재난을 경험한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기획 인터뷰 활동을 진행함. 해당 기록은 지리산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콘텐츠로 공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지리산사람들 및 산청 지역 단체들과 함께 ‘재난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 토론회'를 개최함. 이후 본 활동은 향후 기후재난에 대비한 지리산 시민모임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한 기반 활동으로 이어짐.

- **성과와 평가**

- **지리산권 임팩트 네트워크의 확장**

- 재난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며 피해 주민과 자원봉사자의 이야기를 기록함. 이러한 활동이 '재난 회복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토론회 개최로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리산이음, 지리산사람들, 산청 지역 단체들이 함께 기후재난에 대비한 지리산 시민모임을 준비 중임. 해당 과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성을 갖춘 임팩트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됨.

- **청년 네트워크 형성의 초기 성과**

- 지리산권 청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함양 이소 청년모임, 산청 있다 청년모임, 남원 틈새 청년모임이 각각 첫 모임을 개최함. 이를 통해 기존의 개인적 관계를 넘어 지역 청년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리산이음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협업 가능성을 확인함.

- **일상적 연결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확장**

- 브라이언임팩트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권 내 개별 단체와 모임들이 일상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로 확장됨. 구성원들은 상호 영향력을 확인하며 큰 재정 지원이 없어도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와 개별 조직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임팩트 네트워크로서의 성장 평가**

- 지리산이음과 함께 형성된 지리산권 네트워크는 공동의 목적을 중심으로 학습과 실천을 함께 추진하는 임팩트 네트워크의 형태로 성장하고 있음. 구성원 간의 신뢰와 연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유효한 커뮤니티로 확장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을 지속하기 위한 지리산이음의 역할과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한 해로 평가됨.

○ **관련 콘텐츠**

■ **지리산권 커뮤니티 인터뷰 및 산청 수해 재난 대응에 관한 기획 인터뷰**

| 구분 | 내용 | 관련 링크 |
|-------------------|--|----------------------|
|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x 지리산 | [지리산에서 살기로 했어] 은혜 깊은 혼인 잔치 : 버들과 승현이 환대하는 법 | 바로가기 |
| | [지리산에서 살기로 했어] 먼지와 이르의 '산 너머 선' 결혼식 : 함께 만들어가는 축하와 환대 | 바로가기 |
| | [지리산에서 살기로 했어] 새와 함께 자란 아이, 지리산의 목소리가 되다 - 구례 토박이 활동가 정정환 씨 인터뷰 | 바로가기 |
| | [인터뷰] 청명이 가는 길에 질문이 온다, “탈핵이 뭐예요?” | 바로가기 |
| 산청, 수해 그 이후 | 봉사안내자, 봉사자를 돕는 봉사자들 -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햇살과 한나 인터뷰 | 바로가기 |
| | “애들 살아 돌아온 거, 그게 젤 기쁘더라고예” - 신안면 상정마을 박창웅 농부 인터뷰 | |
| | 봉사자와 수해농민을 위한 식사준비, “밥 먹고 합시다.” | |
| | 지리산의 지원군들 - 구례에서 온 봉사자, 상글 이야기 | |
| | ‘죽을 생각하면 벌받겠다’ 싫어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 단성면 구산마을 딸기 농부 정현옥 인터뷰 | |
| |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다시 발까지의 여정 - 진주 시민 박희란 인터뷰 | |
| | 재난에 대처하는 길은 ‘각자도생’ 아닌 ‘함께하는’ 것 - 단성면 청계에서 공동농사 짓는 성두환 · 홍혁기 농부 인터뷰 | |
| | 자신의 개념을 확장해가는 청소년 봉사자들 - 간디고등학교 채효영, 권다정 학생 인터뷰 | |

| | | |
|--|---|--|
| | “똑같은 일을 겪어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시민사회의 힘이지!” - 신안면 문대마을 딸기 농부 이종혁 | |
| | 산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 산청 주민 김창수님 인터뷰 | |
| | 재난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 하동에 사는 이웃, 정수진 | |
| | 희망 없는 세상에서 웃고 노래하고 춤추기 위해 - 산청 수해 농민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 |

3. 전국 : 커뮤니티 프로그램



- 사업개요

- 비영리커뮤니티 캠프 7기 운영

- 2025년 6월 26일~28일 (2박 3일)
- ‘비영리커뮤니티 캠프’는 시민사회와 중간지원조직등 중견 활동경력을 가진 활동가들이 만나 활동의 경계를 넘어 서로 공유하고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임. 전국에서 10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했으며, 선배 활동가와의 만남, 숲 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휴식과 충전, 그리고 서로간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들로 채워짐.

- 기획컨텐츠 프로그램 : 비영리 커뮤니티웨이

- 비영리 커뮤니티웨이 워크숍
 - 일정 : 2025년 8월 22일~23일 (1박 2일)
 - 장소 : 남원시 산내면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

- 주요 참석자 : 전국 커뮤니티 활동가 14명
- 주요 내용 : 더 나은 비영리 커뮤니티를 위한 '커뮤니티웨이' 카드를 통해서 공동체의 현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더 좋은 커뮤니티를 위한 참가자들의 생각을 듣고 모아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비영리 커뮤니티웨이 연구진 워크숍

- 일정 : 2025년 10월 27일~28일 (1박 2일)
- 장소 : 함양군 서하면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플랫폼'
- 주요 참석자 : 지리산이음 임현택, 조아신, 이은진 / 민주주의기술학교 박운정, 권지현
- 주요 내용 : 커뮤니티 웨이를 더욱 심화·발전하기 위한 2026년 사업 계획 수립, 커뮤니티에 대한 사례 조사 연구를 보다 다양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함.

● 성과와 평가

○ 비영리 중견활동가 커뮤니티의 확장과 지속

- 지역과 분야의 경계가 없는 지지와 현대의 활동가 커뮤니티가 본 사업을 통해 계속 만들어지고, 지속되고 있음. 이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단위 커뮤니티 형성으로 확장되었으며, 활동가 개인 간 교류를 넘어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성과로 이어짐. 또한 대구와 대전 지역에서 지역 주체가 비영리 커뮤니티 캠프를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프로그램이 지역 단위로 확산되는 가능성이 확인됨. 한편, 최근 커뮤니티 분야 전반에서 교육·워크숍·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증가함에 따라 본 사업의 차별성과 지속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함. 이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 네트워크와 본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이 도출됨.

○ 비영리 분야 커뮤니티 방법론 연구의 시도

- 우리 사회에는 시민사회 조직 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직 또한 다수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분야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고

운영되며 발전해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임. 비영리커뮤니티웨이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커뮤니티를 돕는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연구모임으로 발전함으로써 커뮤니티의 발전과 지속성을 만들어가고 있음. 이를 통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1. 전국 : 로컬 영역 프로그램



- 사업개요

- 로컬x여성x삶 포럼 : 오늘의 교차로

- 일시 : 2025년 11월 14일~16일 (2박3일)
- 구례, 하동, 함양, 울주, 의성, 수원, 태백 등 전국에서 참여한 참가자 26명
- 여성, 전환의 삶, 시골살이라는 공통 이슈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전국의 지역 여성들이 모여 각자의 생각과 삶을 나누고, 연결하고 교류하며 공통의 의제를 찾는 참여형 포럼 개최.

- 로컬컨텐츠 프로그램_ 지리산 생활기술캠프 진행

- 일시 : 2025년 4월 18일~20일 (2박3일)
- 지역에서 사는 여성들이 좀 더 자신의 삶에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삶의 질과 자부심을 높이는 생활 기술을 학습하고 네트워크하는 캠프 프로그램 개최.

- 로컬컨텐츠 프로그램_ 로컬문화기획자 개더링

- 일시 : 2025년 7월 25일~27일, 12월 14일~16일 (2박3일, 2회 진행)
- 함양 빈동협동조합, 옥천 고래실, 완주 씨앗협동조합, 의성 두두랩, 제주 씨앗바람연구소
참가
-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들이 지역, 세대, 성별을 넘어 서로 알아가고, 로컬, 문화,
일에 대해 생각하고 대화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최.

○ 로컬교류프로그램_ 산내X홍동 면대면 교류회 진행

- 일시 : 2025년 7월 11일~12일 (1박2일)
- 남원시 산내면의 모임 및 단체(성폭력근절을위한지리산여성회의,
산내청년네트워크틈새, 살래재즈트리오 등) 11명, 홍성군 홍동면의 모임 및
단체(마을활력소, 꿈이자라는뜰, 여성농업인센터 등) 8명 참여.
- 면 단위에서 활동하는 로컬 활동가들이 단체의 경계를 넘어 지역 대 지역으로 함께 만나,
지역의 현황과 현재 고민을 서로 나누는 교류회 행사로 기획 및 진행함. 교류회 이후
농촌과 예술, 커먼즈 금융 등 각 분야의 후속 일정을 논의함.

● 성과와 평가

○ 다양한 지역과 주체의 참여를 통한 로컬 담론 외연 확장

- 여성(로컬x여성x삶 포럼), 생활기술(생활기술캠프), 문화기획(로컬문화기획자 개더링),
면 단위 지역(산내x홍동 면대면 교류회) 등 다양한 주제와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를 통해 기존 도시 중심 네트워크를 넘어 소규모 지역 단위의 교류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여성·세대·지역을 넘나드는 교류를 통해 로컬 의제의 입체성을 강화함.
한편, 단순한 교류를 넘어 '로컬' 영역이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이슈나 정책
논의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확인됨.

○ '로컬' 영역의 지리산이음 사업영역으로의 안착

- 3년간 지속한 '로컬x여성x삶 프로젝트'를 통해 '로컬'이 지리산이음의 핵심 사업 영역으로

자리 잡음. 이러한 흐름은 지리산포럼 등 다른 사업으로도 확장되어 로컬 의제가 자연스럽게 다뤄지고, 지역 활동가들의 참여 또한 활발해지는 변화로 이어짐.

○ **관계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협업의 시작**

- 캠프와 포럼을 통해 형성된 관계가 ‘학습모임’, ‘로컬문화기획자 개더링’ 등 소모임으로 발전하며 장기적인 관계망으로 성장함. 이 과정에서 참여자 간 네트워크가 각 지역 활동의 실질적인 자원으로 작동하며 상호 지원 체계가 구축됨. 또한 산내x홍동 교류회 이후 예술, 공동체 금융 등 각 분야의 후속 일정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협업 기반이 마련됨.

○ **관련 콘텐츠**

- 지리산생활기술캠프 페이지 ([링크](#))
- 2025 로컬x여성x삶 포럼 : 오늘의 교차로 페이지 ([링크](#))
- 2025 로컬x여성x삶 포럼 : 오늘의 교차로 참가자 후기 ([링크](#))

4-2. 전국 : 지리산포럼2025



● **사업개요**

○ **지리산포럼2025 : 민주주의, 함께 키우는 숲**

- 일시 : 9월 25일~9월 28일 (총 4일)
- 약 191명이 참여하고 23개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됨.

- 민주주의의 회복을 중심으로 읍·면 자치와 지역 풀뿌리 활동, 데이터와 기술, 먹거리 자립, 활동가의 지속가능성, 노동 등 시의적으로 중요한 의제와 함께 거시적인 주제를 두루 조망할 수 있도록 기획됨.
- 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해 프로그램 약속문을 도입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지침을 마련함.

● 성과와 평가

○ 시의적절한 사회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 조성

- 내란과 탄핵 사태를 겪으며 2025년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 해였으며, 지리산이음 또한 이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함. 지리산포럼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 전반에서 올해 우리 사회가 겪은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고, 함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함. 그 결과, 지리산포럼은 시의성 있는 의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참가자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통한 주제 다양성 확보

- 올해 지리산포럼에서는 참가자가 스스로 섹션을 개최하고자 신청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이는 지리산포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참가자 자발 운영 섹션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일정 조정 등 여러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일정상의 한계로 인해 모든 제안을 수용하지는 못함.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향후 지리산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새로운 과제로 남음.
- 한편 협력섹션, 상상섹션, 참여섹션 등 전체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면서 일정이 다소 밀도 높게 구성되었으나, 참가자들이 스스로 일정을 조정하며 참여하는 지리산포럼 특유의 문화가 형성되는 흐름이 나타남. 이러한 흐름은 섹션별 참여가 비교적 고르게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이어졌으며, 운영상 특별한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음. 다만 이러한 문화를 지리산포럼의 고유한 색깔로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섬세한 운영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짐.

○ 지리산이음 구성원 참여를 통한 공동 운영 체계 구축

- 지리산이음 조합원들이 운영진으로 참여하여 공간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의 집중을 분산할 수 있었음. 이를 통해 운영 전반의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향후 구성원들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경우 운영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련 콘텐츠

- 지리산포럼2025 특설 페이지 ([링크](#))
- “집 다음으로 좋아요”...한 가족이 지리산포럼에 매년 ‘출석’하는 이유 ([기사 링크](#))
- “민주주의, 샵터에서 함께 키워요” ...전국 활동가 지리산에 모인다 ([기사 링크](#))

4-3. 교육 연수



● 사업개요

○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홈페이지 운영 및 ‘공익활동가주간’ 참여

- 2015년부터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인터뷰로 기록·아카이빙하는 홈페이지로 지속 운영 중임.
- 2024년부터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전국 시민사회 영역에서 진행되는 ‘공익활동가주간’의 온라인 홍보 및 아카이빙 플랫폼으로 활용 중임.
- ‘2025 공익활동가주간’ 연계 인터뷰 콘텐츠 총 41개 제작함.

- 7월 첫 주 진행된 공익활동가주간과 연계하여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인터뷰 진행함.
- 인터뷰어 33명, 인터뷰이 42명 참여, 총 42개 인터뷰 콘텐츠를 아카이빙함.

○ 교육 연수

- 태국 치앙마이 워크케이션
 - 일시 : 2025년 1월 2일~13일 (11박 12일, 11명의 초대자)
- 사무국 연수
 - 제주도 워크숍: 세화 질그랭이거점센터, 제주소통협력센터, 제주다크투어 등 방문.
 - 국내 로컬 탐방 및 연수: 완주 고산면, 의성군 등 지역 탐방 및 교류 진행함.

● 성과와 평가

○ 사업의 확장성과 지속성에서 의의 확인

- 전국 단위 활동 조직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지리산이음의 역할을 모색하고 기여한 한 해로 평가됨. 이를 통해 전국 시민사회 활성화 흐름 속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함.
- 2024년 워크케이션을 계기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지원사업 '비영리 리더십 커뮤니티 in 치앙마이'가 운영 중임. 2025년 워크케이션에서는 참여자들이 해당 지원사업 참여자들과 교류하는 계기를 마련함.
- 또한 치앙마이 워크케이션을 통해 로컬문화기획자 개더링으로 연결되는 지속적 파트너 네트워크가 구축됨.

○ 더 넓은 연결을 위한 외부 활동의 필요성 확인

- 지리산이음은 전국, 로컬, 지리산권, 마을 단위를 아우르며 '연결'을 키워드로 활동하고 있음. 이러한 연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을 직접 만나는 외부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리산으로 활동가들을 초대하는 방식에 더해, 구성원들이 다양한 현장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연결의 확장성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근년의 경우 자체 사업 운영의 비중이 커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는 활동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음.

- **관련 콘텐츠**

- 2025 공익활동가주간 공식 페이지 & 아카이브 ([페이지](#))
- 비영리 워케이션 in 치앙마이 아카이브 ([페이지](#))

5. 일반 운영



- **사업개요**

- **지리산이음 변화 전략 TF**

- **주요 내용**

- 지리산이음은 지속가능성의 원동력을 '사람'으로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어떻게 심화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변화 전략 TF를 운영함.
- 지속가능성을 핵심 주제로 조합원 인터뷰, 설문조사, 사무국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조합원 수련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과정을 마련함.

- **운영 일정**

- 2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변화 전략의 필요성 제안함.

- 4월: 변화 전략 TF 구성함.
- 5월: 조합원 개별 인터뷰 및 사무국 인터뷰 진행함.
- 6월: 변화 전략 TF 워크숍 진행함.
- 7월: 조합원 수련회 진행함.
- 11월: 변화 전략 TF 워크숍을 통해 변화 전략 방안 및 구성원 역할 논의함.

■ 운영 성과

- 변화 전략 TF 운영을 통해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조합원 인터뷰, 설문조사, 사무국 인터뷰, 조합원 수련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직의 현재 상태와 과제를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며, 각자가 조직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탐색하는 기반이 형성됨.
- 변화 전략의 핵심을 ‘사람’에 두는 방향에 대해 구성원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리산이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이어갈 수 있는 조직적 모멘텀이 확보됨. 향후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실천을 확장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의 가능성을 확인함.